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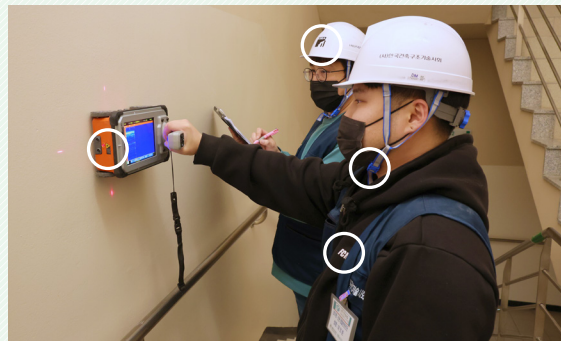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햇살나무'에서는 ▲미술심리상담 ▲놀이치료 ▲음악 치료 ▲아로마요가 등 중증 환아와 가족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3월 26일 햇살나무 프로그램실에서 환아가 점토를 활용한 미술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20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우리 병원에 곧 봄꽃이 핍니다'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외과간호1팀 안소연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4월 15일(월)
발표 제724호(2024년 5월 1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유지애(진단검사의학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지우(외래간호팀)
오상균(수술간호팀)
지순희(총무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박예슬(건진운영팀)
윤정미(중앙공급팀)

캔버스 북커버
강서정(방사성의약품제조소)
김선미(수술간호팀)
이미영(수술간호팀 신관마취회복 유닛)
장선영(내과간호2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고아라(약제팀)
문미영(수술간호팀)
이영철(수술간호팀)
이정화(영상의학팀)
조혜영(심장검사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22 2024. 4. 1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응급실 동료들과 함께 이룬 성과” 응급의학과 김원영 교수가 제17회 아산의학상을 수상했다. 아산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외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 김 교수는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에 전념하고, 우리 병원 응급실의 심폐 소생술 생존율을 국내 평균 5%의 6배인 30% 가까이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임상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우리 병원은 의료진 간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 시스템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가장 빠른 시간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전임의, 전공의,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여러분과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원영 교수(앞줄 가운데)와 우리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3면)

02 NEWS 간암 치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08 AMC IN(人)sight 고민하고 공감하며 답을 찾다

10 잡(job)·담(談) 복잡한 숫자의 세계를 명쾌하게 안내합니다

13 마음건강노트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간암 치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김강모 교수



김남국 교수

간암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 전이여부뿐 아니라 잔존 간 기능 등 고려할 요소가 많고 치료 방법도 다양해 치료 방향 결정이 어렵다. 이를 위해 소화기 내과 김강모 교수,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이 인공지능으로 환자별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생존율을 예측하는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우리 병원을 비롯한 국내 9개 기관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다양한 치료를 받은 환자 2,685명의 ▲기본 임상정보 ▲암 진단 후 처음 받은 치료의 종류 ▲치료 이후의 생존 데이터를 수집해 병원별

로 나누어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 연구 결과, 치료 예측 정확도는 우리 병원 내부 및 외부 데이터셋에서 각각 87.27% 및 86.06%였고, 생존 예측 정확도 역시 91.89%와 86.48%로 높은 진단성능을 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동일한 환자에게 다른 치료 방법을 권장하기도 하고 치료별 생존율을 다르게 예측하는 특성을 보여, 실물과 똑같은 상황을 가상모델로 구현하고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단 분야에만 적용되는 인공지능을 치료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치료 방향 설정이 어려운 간암환자에서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능해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파트너 저널 디지털 메디신」 온라인에 최근 게재됐다.

심장병 네팔 소년 초청 진료



(왼쪽부터) 소아청소년심장과 백재숙 부교수, 쓰리전 군,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인 ‘대혈관 전위’를 가지고 태어난 쓰리전(남, 4세) 군이 202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쓰리전 군은 2020년 1월 네팔에서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을 만났고, 현지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보름 만에 우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가 동맥치환술과 심실 사이에 있던 구멍을 복원하는 수술을 시행해 건강을 회복했지만 네팔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려워 심실 기능 부전이 발생했다. 우리 병원은 3월 4일 다시 쓰리전 군을 초청했고, 인공 심박동기를 CRT(심실 재동기화 치료)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술과 심부전 치료를 시행했다. 쓰리전 군은 다시 심실 기능을 회복해 3월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소아청소년심장과 백재숙 부교수는 “환아가 치료 과정을 무사히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네팔로 돌아간 뒤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쓰리전 군의 치료비는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우리 병원이 전액 지원했다.

제17회 아산의학상… 이창준 연구소장, 김원영 교수 수상



(왼쪽부터) 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김원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 정인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이 3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됐다. ▲기초의학부문은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IBS)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 ▲임상의학부문은 김원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젊은 의학자부문은 정인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아산재단은 이창준 연구소장, 김원영 교수에게 각각 3억원, 정인경·오탁규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 4명의 연구 성과와 업적을 일일이 소개하며 축하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정 이사장은

“아버님께서서는 복지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1977년에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세우셨다”며 재단의 설립 취지를 밝힌 뒤, 정주영 설립자가 1989년 서울아산병원을 개원하면서 남긴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술은 참으로 무한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또한 한이 없다. 송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한다”는 의학 연구에 관한 말씀을 소개했다. 이어 “오늘 수상자 네 분의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수상자들께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시는 데 오늘의 아산의학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창준 연구소장은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알려졌던 별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세포(Astrocyte)’ 연구로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김원영 교수(서울아산병원 응급실장)는 20여 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심정지, 패혈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에 전념하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의 심폐소생술 생존율을 국내 평균 5%의 6배인 30% 가까이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부문의 정인경 교수는 3차원 게놈(Genome) 지도를 해독해 파킨슨병, 암 등의 질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규명했고, 오탁규 교수는 국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 연구로 처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혈관질환 진단 솔루션’ 디자인상 수상

우리 병원의 ‘딥러닝 기반 흉부 X선 심혈관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이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024년 서비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X) 두 개 부문 분상을 수상했다.

이 솔루션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으로 영상의학과 양동현 교수가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에

서 UX/UI 설계 및 디자인을 지원한 프로젝트다. 기존에는 수동으로 심혈관 경계를 구분하고 길이와 각도 등을 측정했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른 편차와 시간소요가 발생했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심혈관 경계의 자동 분석 및 시각화된 결과값을 제시해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카고대학병원과 협약



3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전인호 국제사업실장, 미첼 포즈너 시카고대학병원 암센터 진료부원장(왼쪽 세 번째,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3월 14일 시카고대학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1927년 설립된 시카고대학병원은 총 811병상 규모로 연간 외래환자 24만여 명, 입원환자 3만 4,000여 명, 수술건수 2만 4,0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전인호 국제사업실장과 시카고대학병원 암센터 미첼 포즈너 진료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인적자원 교류 ▲공동 관심 분야 교육 활동 및 연수 행사 개최 ▲환자 공동 진료 및 송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인호 국제사업실장은 “시카고대학병원과의 협력으로 미국 내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위크 ‘세계 병원 평가’ 디렉터 초청 강연



루카스 크비에트니에프스키 스타티스타 디렉터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

(Statista)와 매년 ‘세계 최고 병원’과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스타티스타의 루카스 크비에트니에프스키 헬스케어 분석 디렉터 초청 강연이 3월 15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김태원 암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우리 병원과 암병원의 우수한 치료 성과 등이 소개됐고, 이어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 평가의 개요, 평가 지표·방법 등에 대한 루카스 크비에트니에프스키 디렉터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홍천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



의료봉사에 참여한 직원이 환자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직원 추천 의료봉사’가 3월 26일부터 2일간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과 내면에서 진행됐다. 직원 추천 의료봉사는 직원이 추천하는 의료취약 지역 농어촌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펼치는 활동이다. 홍천아산병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우리 병원 직원 17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팀은 지역 주민 153명을 진료했고,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소변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다.

심장판막 질환 심포지엄



3월 16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심장병원이 주관하는 심장판막 질환 심포지엄 (Valve Summit 2024)이 3월 16일 동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심장판막 질환 치료법 결정을 위한 학술 지견의 통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심장판막 질환 분야 원내·외 의료진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동맥판막 협착에 대한 고찰 ▲경피적 승모판막 성형술의 현황 및 적응증 ▲새로운 바이오마커로서의 좌심근 움직임의 변화 ▲심장질환 시술의 최신지견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좌장으로 참석한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는 “심포지엄을 통해 심장판막 질환 치료의 쟁점과 임상지침의 한계를 살펴보고 치료의 최신지견을 공유함으로써 심장판막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I활동 담당자 워크숍



3월 7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근본원인 분석과 질 향상 단계별 방법론(PDCA) 활용’ 실습을 하고 있다.

PI활동 담당자 워크숍이 3월 7일부터 2일간 동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우리 병원은 환자 안전과 업무 질 향상을 위해 업무 중 발생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PI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PI활동 팀별 대표와 팀 코치(QPS 히어로) 등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질 향상 활동의 기본 개념 및 단계별 방법론 강의와 실습 ▲2023년 우수 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팀워크를 강조한 PI활동 단계별 실습을 강화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건강증진센터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7년 연속 건강증진센터 부문 1위에 선정됐다.

2023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자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는 K-BPI 총점 554.8점을 받아 2~5위 병원 평균인 370.3점을 크게 앞섰다. 특히 브랜드 인지 파워를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최초 인지도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임상 데이터 기록·관리 솔루션 개발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APEX)가 비임상시험 연구 데이터 기록 및 관리 솔루션 ‘랩노트 오렌지’를 개발해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랩노트 오렌지는 국내 최초의 연구 프로세스별 맞춤형 솔루션으로 비임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전자연구노트 기능과 실험 정보관리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실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자동화 ▲데이터 연동을 통한 QA 시스템화 ▲의생명 분야 용어 표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의 기능이 구현돼 사용자의 편의와 연구의 효율이 모두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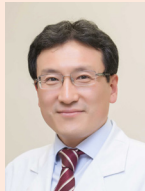
국제간외과학회 싱글토픽 심포지엄 개최



김기훈 교수가 국제간외과학회 싱글토픽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제간외과학회가 주최한 2024 국제간외과학회 싱글토픽 심포지엄(조직위원장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됐다. ‘복강경 vs 로봇 수술: 경쟁 혹은 보완’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틀간 4개 기관에서 6개의 간담체 수술을 학회장으로 실황중계했다. 이는 전 세계 간담체외과학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동시간대 다기관 간담체 수술실황중계였다. 김기훈 교수는 “복강경과 로봇 수술에 대해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진료 및 치료 방향을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말했다.

전인호 국제사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인호 국제사업실장이 3월 14일부터 2일간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인호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의학자 연수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우정 교수 유럽호흡기학회 학술지 편집장



알레르기내과 송우정 교수가 유럽호흡기학회 학술지인 「유럽호흡기저널(ERJ) 오픈 리서치」의 편집장으로 최근 선출됐다. 유럽호흡기학회는 3만 5,000여 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호흡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술단체다. 송 교수는 유럽호흡기학회에서 2019년 만성기침 치료 가이드라인, 2021년 소아청소년 기관지확장증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했으며 2020년부터 「ERJ 오픈 리서치」 부편집장을 맡고 있다. 송 부교수의 임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다.

조경욱 부교수 울산대 올해의 교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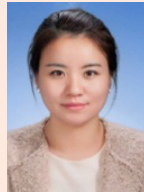
호흡기내과 조경욱 부교수가 3월 15일 열린 울산대학교 54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연구 부문 올해의 교수상을 받았다. 조 부교수는 비결핵항산균 폐질환과 결핵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게재하며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이준엽 부교수 탐곤안과학술상



안과 이준엽 부교수가 3월 29일 열린 대한안과학회 131회 학술대회에서 탐곤안과학술상을 수상했다. 탐곤안과학술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안과의학자가 발표한 국내·외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업적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부교수는 ‘빛에 반응하여 일산화질소를 방출하는 화합물을 이용한 급성혈관 폐쇄의 광역학치료’를 비롯한 네 편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이 부교수는 그동안 치료방법이 막연했던 망막혈관폐쇄의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제안해 학술적·임상적 의의를 높이 평가받았으며, 임상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연숙 부교수 우수포스터상



울산의대 최연숙 부교수가 3월 8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최 부교수는 ‘역형성 갑상선암에서 대식세포를 조절하는 CPA4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상훈 조교수 최우수구연상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상훈 조교수가 3월 20일부터 4일간 열린 한국간담체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HBP Surgery Week 2024)에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김 조교수는 ‘절제 가능한 단일 간세포 암종에 대한 수술 전 경동맥화학색전술: 단일센터 코호트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박정희 차장 모범간호사상



외과간호2팀 박정희 차장이 3월 14일 열린 제77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모범간호사상을 받았다. 박 차장은 성실과 봉사의 자세로 환자 회복과 간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이종민 과장 미래선도간호사상



외과간호2팀 이종민 과장이 3월 5일 열린 병원간호사회 제49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미래선도간호사상을 받았다. 이 과장은 임상현장에서 간호 연구와 근거기반간호실무 및 간호의 질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프로세스 재정비로 업무 효율과 환자 만족 높였어요

감염관리센터 일반촬영실, 음압격리응급실

어느 휴일, 음압격리응급실이 환자 전원 준비로 바쁘다. 영상 사본 발급을 담당하는 일반촬영실도 덩달아 분주하다. 검사와 사본 발급 업무를 함께 하니 업무 속도도 느려지고 환자들의 대기 시간도 늘어났다. “환자와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감염관리센터(CIC) 환자의 영상 복사와 발급이 모두 CIC 안에서 이뤄진다. 전원이 결정되면 음압격리 응급실에서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뒤 일반촬영실에서 CD를 수령하는 프로세스다. 야간과 휴일에는 평일 주간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일반촬영실의 특성상 환자 촬영과 영상 복사·발급 업무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다. 전달받은 영상 복사 목록을 기억하다가도 복사를 마치고 나면 혹시 누락된 건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했고, CD 준비가 안 됐는데 환자가 찾아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늘 해오던 과정을 다시 살피며

일반촬영실 방사선사들과 음압격리응급실 간호사들은 사본 발급 의뢰에서부터 환자가 수령하기까지의 프로세스와 두 부서 역할의 다시 정리했다. 우선 영상 복사 기간에 따라 연락 경로를 구분했다. 음압격리응급실 입실 후에 촬영한 영상만 복사할 땐 SMS로, 입실 이전 영상까지 필요해 복사할 항목이 많을 땐 전화로 의뢰하도록 했다. 영상의 종류, 기간, CD 수령 예정 시간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SMS 양식도 새롭게 만들었다.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간결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협업은 성공적이었다. 업무 효율과 환자 편의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음압격리응급실 간호사들도 복사를 요청할 영상 목록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됐고, 일반촬영실에서는 환자가 CD를 수령할 시간까지 복사해야 할 영상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환자와 보호자도 CD 수령



감염관리센터 일반촬영실 앞에서 기념촬영. 왼쪽부터 영상의학팀 한규태 주임·구노현 대리, 응급간호팀 심은경 차장, 영상의학팀 이성구 과장·박장흠 차장.

시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원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반촬영실에 여러 번 방문하는 일이 줄어오니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두 부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작은 개선점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직원,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의미를 느꼈습니다.”

- 음압격리응급실 박영순 윗넛 매니저

모든 노력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일반촬영실 방사선사들은 또 다른 협업의 시작점에 서 있다. 공기주의 환자 검사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는데, 이 땐 다른 검사 진행이 불가하며 촬영실 출입도 제한된다. 유관 부서나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촬영실의 상황(출입 가능 여부, 검사 가능 여부)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을 이어간다. “환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더 고민하고 시도해 보려 합니다. 모든 노력은 결국 환자의 안전과 만족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 영상의학팀 한규태 주임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민하고 공감하며 답을 찾다

○ 안과 이병주 조교수

“많이 불편하시죠?”

이병주 조교수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환자들의 불편을 아는 것은 치료의 첫 매듭이 된다.

두 눈이 협동해서 움직여야만 불편이나 혼란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이 조교수도 환자와 함께

같은 치료 목표를 향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터놓는 진료를 펼치고 있다. ○



대화에서 출발하는 치료

눈은 상당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기능적으로도 복잡하고 오묘해서 일찍이 이병주 조교수는 안과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중에서도 시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 세상을 똑바로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소아안과를 택했다. 보통 어릴 때부터 생기는 사시를 치료하면서 사시를 발생시키는 뇌 신경계 분야로 확장해 신경안과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

예전에 나간 아프리카 해외진료 봉사에서 20대 여성의 사시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다. 환자는 어려서부터 외관상 심한 사시였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다. 수술 후 크게 만족한 환자는 이제 취직도, 결혼도 할 수 있겠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줘 고맙다고 인사했다. “주관적인 ‘미’를 다루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눈의 위치를 바로잡는 건 삶을 향상하고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 거죠.”

중증 환자의 기대가 치료 한계에 부딪히거나 의료진의 치료 목표와 다를 때가 있다. 이 조교수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 나간다. “환자가 원하는 바와 생활 패턴 등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 후에 질환 특징과 치료 방법을 설명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함께 찾아가죠.”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양이나 방법을 놓고 이 조교수는 혼자만의 고민을 거듭한다. 수술 직전야 최종 결정을 내릴 때도 많다.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은 스스로 꼬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처음 수술하는 분들의 경우엔 결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재발하면서 복잡한 조건이 많아진 환자에선 치료의 제한점도 많아지거든요. 최선의 다음 스텝을 만들어야 하기에 고민이 길어지는 거죠. 그게 서울아산병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고민한 결정은 후회도 남지 않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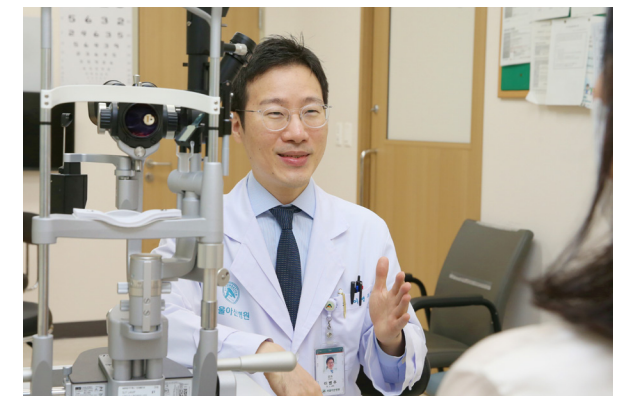
연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마음

유전자 검사와 같은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왜 안 보이는지, 뭐가 불편한지 몰랐던 희귀 질환의 진단이 가능해졌다.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치료법을 묻는 환자들에게 해줄 대답이 없을 때 의사로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모든 시신경 질병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시신경 위축이 이미 진행된 경우엔 손쓸 여지가 없다. “시신경을 보호할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험동물 수준에서는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기초 연구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숙제죠.” 이 조교수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 석사 과정을 밟은 것도 기초 실험의 기회를 만들고 경험을 쌓으며 시신경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싶은 바람에서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치료법이나 예방법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할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신경과 강동화 교수와 사시 환자들에게 두 눈을 함께 쓰는 능력을 키워줄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디지털 치료제도 임상시험 중이다. 소아안과에서의 활용 방안과 어떤 환자에게 더 유용할지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나갈 계획이다.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양한 질환의 첫 증상이 눈으로 나타나곤 한다. 안구 돌출과 사시로 인해 찾아온 한 환자는 ‘갑상선안병증’이라는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증상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진행이 다 멈춘 뒤에야 사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환자는 불편한 채로 몇 년을 견뎌야 했다. 드디어 수술을 받고 외적인 문제와 사물이 둘로 보이는 불편을 해결한 환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이 조교수를 찾아왔다. “정말 어렵게 꽃을 피웠다며 댁에서 키운



난을 선물해 주셨어요. 기쁘고 귀한 마음이 전해져서 늘 가까이에 두고 지금도 열심히 물 주고 있습니다.(웃음)” 이 조교수는 ‘이제 저와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을 고대하며 환자들과 만난다.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라면 눈에 생긴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해 미궁에 빠진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진료과로 연결할 때를 꼽았다. “이미 다른 데서 여러 진료를 받으셨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이 저와 만날 때만큼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편안하게 느껴지는 의사가 되도록 더욱 잘 듣고 공감하겠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잡한 숫자의 세계를 명쾌하게 안내합니다

경리팀 임태규 과장



“11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며 긴장도 됐어요.”

페이퍼리스 도입

2023년 연말정산은 서류 제출 방식에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예년보다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교육을 이수하고 전산 시스템에 반영할 내용을 IT서비스팀에 요청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전산 설계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 전산테스트가 이어졌다.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가상의 인물을 샘플링해서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오는지, 국세청의 모의 계산과 일치하는지 맞춰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동시에 한 달여 동안 사용할 연말정산 사무실을 세팅하고 지원 업무자를 뽑아 교육했다.

임 과장은 연말정산 안내 게시물을 순차적으로 게시했다.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 구성을 짜고 디자인을 덧입혔다. 전산팀에는 꼭 기재해야 할 항목을 컬러링하고, 국세청 홈택스 자료 외의 업로드 파일은 공제 종류별로 구분값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잠실세무서에서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받고 확인하는 모습



임태규 과장(오른쪽 첫 번째)이 인사팀과 연말정산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임금에서 공제할 세금을 신고하고
각종 세무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세무 업무

전산으로 세금 신고 요청이 속속 도착한다. 임태규 과장은 하나씩 검증하고 승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때때로 올리는 전화 역시 세금에 관한 문의다. 세법 적용이 애매한 내용에는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일단 전화를 끊는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국세청 상담센터와 회계법인에도 질의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다. 매월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급여 지급 등의 업무가 반복되는데, 당장 급한 내용이 아니어도 미뤄두면 순식간에 일이 쌓여서 요청이 오는 대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얼마 전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면서 그나마 한숨 돌리는 요즘이다. 지난해 10월 1일 경리팀에 배치된 직후부터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되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리팀 동료들과 유관부서의 도움 덕분에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

“4개월에 걸쳐 9,502명의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노력 이상의 보람

지난 1월, 국세청 홈택스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자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설명이 길어진 사이에 아산웍스 메시지는 금세 수십 개가 쌓였다. 순차적으로 답변하느라 귀가가 늦어져도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람이 느껴졌다. 직원들의 입력 기간이 끝난 이후엔 데이터 검증이 시작됐다. 10원의 오류에도 원인을 찾기 위해 매일 숫자와 씨름했다. 결국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면 희열이 느껴졌다.

잘못 입력하거나 제출한 파일이 미진한 직원들에겐 연말정산 사무실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정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내역을 빠뜨렸던 직원은 수정 후에 훨씬 커진 환급액을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환수에서 환급으로 바뀐 직원은 표정도 환하게 바뀌었다. 그때마다 임 과장도 뿌듯하게 웃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와 자원효율화 등을 위해 ‘페이퍼리스 연말정산’을 도입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무난히 적응했고 편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경리팀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인사팀에 최종 자료를 넘기고 국세청에 결과를 신고하며 연말정산 업무는 3월 11일부로 종료되었다.



임태규 과장이 서관 지하 창고에서 예전 결산 서류를 찾고 있다.

“숫자 속의 의미를 보고 싶어요. 직원들에게
더 도움 될 부분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2013년에 입사한 임 과장은 인사팀과 재단 경영지원팀, 원무팀을 거쳐 현재 경리팀에서 일하고 있다.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은 업무였지만 워낙 생소한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작은 실수도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했다. 그렇다고 숫자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개정 세법이 우리 병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인사팀과 재단 경영지원팀에서 급여 지급 항목, 공제 항목 등의 내용을 경험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직원들의 문의에 답변하다가 문득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스스로 느낄 때면 일하는 재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세금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분야다. 직원들의 반복된 질문을 줄여나가는 것이 경리팀의 업무효율화에 해당할 것이다. 필요한 안내글을 게시하고, IT서비스팀과도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자주 논의하고 있다. 문의를 받을 때마다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게시판에 매뉴얼을 올려놔오니 헛갈릴 때 확인해 보세요”라는 안내를 곁들인다. 그 속엔 모두가 세무 분야와 조금 더 가깝고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인생은 곡선이니까요



외과간호1팀 안소연 사원

나는 104병동에서 신·췌장이식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년을 기다린 끝에 뇌사자 신장이식을 받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나이트 근무 중 할아버지의 혈압이 감소하고, 소변량도 줄어들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의 흔적이 발견됐다. 수액을 추가로 연결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밤새 병실을 들락날락했다. 할아버지는 “나 수술이 잘못 돼서 다시 투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걱정을 했지만 나는 “아니예요”라고 짧게 답했다. 내 업무도 다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마음까지 챙겨드릴 여유가 없었고 모든 게 버겁기만 했다. 몇 시간 뒤 채혈 추가 처방 알람이 뜨자 다시 마음이 조금해졌다.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할아버지의 팔과 다리가 떠올라 한숨을 푹 쉬었다. 당시 나는 채혈에 실패한 적이 많은 신규 간호사였기 때문이다. 주사기를 잡으니 긴장도 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에 손이 덜덜 떨렸다. 애꿎은 소독솜으로 할아버지의 팔을 계속 닦았다. 희미하게 보이는 혈관에 바늘을 꽂았지만 혈액은 나오지 않았고 진땀이 흐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죄송해요, 많이 아프시죠? 제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간호사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환자에게 죄송한 마음, 그리고 선배에게 부탁해야 하는 무거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나는 수십 년을 기다린 신장이식을 마침내 받았어.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니까 조금해하지 않아도 돼. 마음껏 편하게 해”라고 말해주었고,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다시 시도해 보았다. 다행히 혈액이 나오기 시작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냈어요”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굿!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거야”라며 격려해주셨다. 할아버지가 처

음 걱정을 내비쳤을 때 통명스럽게 대답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고 오히려 나를 믿고 격려를 해준 것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복잡한 감정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일을 하다가 퇴근한 뒤에 평평 울었다.

치료를 통해 할아버지의 몸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 당뇨를 앓고 있어 이식을 받은 뒤부터 인슐린을 투약했는데 퇴원 후에는 직접 투약하는 연습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몇 년 전 뇌졸중을 겪어 두 손이 주사를 투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렸다. 할아버지는 바빠 보이는 내가 옆에서 기다리는 것에 미안해 하셨고 결국 내가 대신 투약을 해주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스스로 투약을 하지 못해 힘겨워하던 얼굴이 예전에 채혈에 실패한 내 모습과 겹치면서 계속 생각이 났다. 다음날 인슐린을 가지고 오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었다. 나는 “생각나시죠? 조금해하지 않고 침착! 직선이 아니라 곡선! 우리 같이 천천히 해봐요”라고 말하며 배개로 할아버지의 떨리는 팔을 받혀주고, 인슐린을 할아버지의 떨리는 두 손과 내 손으로 함께 잡고 투약 버튼을 눌렀다. 다음날에는 할아버지의 팔만 잡아주었고, 이후에는 도움 없이 스스로 투약했다. 마지막에는 인슐린에 바늘도 직접 끼울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지고 퇴원하는 것 같아. 우리는 서로 성장했어”라며 밝은 모습으로 떠났다. 느리고 서툰 신규간호사로서 맡은 바를 해내는 것은 언제나 두렵다.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일,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마법 같은 주문은 항상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환자를 만나는 일이 일
상이 되면 질병 치료,
죽음 등에 대해 일반 사

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아는 만큼 무섭기 때문에
소소한 증상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 정작 자
신의 건강 상태를 잘 챙기지 못하거나 알게 된 건강 문제를 간과
하며 죽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을 부인해 보려는 심리 기제가 발
동하기도 합니다.

건강은 관리가 필요하며 질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직원종합건강검진을 받은 2,611명 중 진료를 필요로 하는 소견은 무려 73.2%였으며 그 중 14명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4.7%, 즉 국민 21명 중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1/3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높으나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므로 위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정기검진은 조기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신체 건강은 정신적 웰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을 살피는 일에 소홀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챙기기관 요원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의학적 치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잘 받으려 하지 않으며 정신건강을 유지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에 관심이 적습니다.

2021년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인구 중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심리상담사, 종교인, 사회복지사 등을 모두 포함해도 12.1%에 불과했습니다. 과거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치료 거부율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장애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가 건강검진 영역으로 들어온 이유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재발이 잦으며 만성화되기도 쉽지만, 조기 발견 시 약물 및 심리치료의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을 했을 때 이익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울증 검사는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에 한번 우울증 척도(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사용해 평가하며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일 때는 별도의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우리 병원도 검진 시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하여 검사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원내 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정신건강관리는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자 함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건강 관리에 소홀할 때 질병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연속이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풍납동 공원 청소 봉사

봉사와 친목, 일석이조 봉사활동



방사선종양팀 강진우 사원

동료들과 대화 중 방사선종양팀에서
한 달에 한 번 풍납근린공원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맞는 팀원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처음 참여하게 됐다.

나는 먼저 병원에 들러 봉사활동에 필요한
한마음봉사단 조끼, 집게, 쓰레기 봉투를
챙겨 천호역 10번 출구로 향했다.

봉사활동 조끼를 나눠 입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 뒤 공원로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을 하며 공원 구석구석을 살폈다. 파손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부서에 신고했다. 공원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지만 작은 쓰레
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줍고 담았다. 청소를 하며 걷다가 뒤를 돌
아보니 우리들이 지난 자리가 한결 더
정돈되고 깨끗해진 것 같아 뿌듯했다.
그동안 근무 중에 대화할 기회가 부족
했던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즐겁게 대
화를 나눴고, 봉사활동 후 가진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
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사람을 도우
며 동료들과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
는 ‘1+1 상품’ 같은 봉사활동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방사선종양팀 직원들.

굿바이
콩글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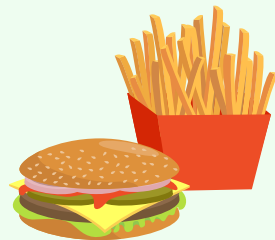
고지혈증 환자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을
한다. 기름 많은 튀김이나 당류가 많은 음식은 피하라고 한
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과 느끼함을 느끼는
데, 이때 ‘느끼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사전에는
‘greasy, oily, rich’가 나오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기름
질 땀 ‘greasy, oily’, 느끼할 땀 ‘rich’로 구분해서 쓰자.

기름진/느끼한

greasy, oily (기름진) rich (느끼한)

Let's Talk

- A This burger is delicious! But fries are a bit much
for me, so greasy.
이 햄버거 맛있다. 그런데 감자튀김은 너무 기름져서 부담스
러워.
- B I feel the same way. For that reason, I avoid rich
cream spaghetti.
맞아. 나도 그런 이유로 느끼한 크림스파게티를 안 먹게 돼.



글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마감’이라는 말이 있다. 마감
의 쫓김 때문에 글을 쓴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일을 미
루고 미루다 마감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마친 경험은 누구
나 있을 것이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를 제대로 살
리려면? “We have no time”이라고 해도 되지만 “Time is
running out!”으로 더 자연스럽게 긴박함을 표현해 보자.

시간이 없다(촉박할 때)

☹ We have no time.
😊 Time is running out.

Let's Talk

- A We missed the bus! Time is running out.
버스 놓쳤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 B Oh no, that's not good! Let's take a taxi.
아 어떡해! 택시 잡자.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과간호2팀 고명조 주임

‘문화·생활정보 - 우리 병원에 곧 봄꽃이
핀다’ 코너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렇게 많은 꽃이 피는지
몰랐어요. 꽃이 피면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나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약제팀 고아라 사원

‘협업의 가치 - ‘역지사지’로 시술 안내 프로세스 개선’ 코너가 좋았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수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 직원들이 있어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네요. 협력의 중요성과 환자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병리과 이은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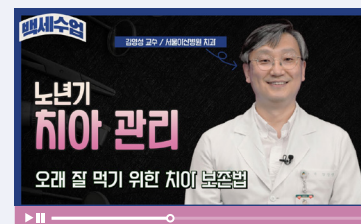
‘AMC IN(人)sight -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늘
지켜봐야 하는 의료진의 사명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질병의 원인들을 찾아가는 노력과
땀방울이 쌓여 지금의 의료 서비스와
미래의 의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쏟은
의료진을 존경하게 됐어요.

진료지원팀 박소영 차장

‘잡(job)·담(談) - 환자 안전만큼
직원 안전도 중요합니다’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 병원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환경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글을 읽고
재해예방관리실 윤진태 대리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결국
부모인 직원을 지키는 일이어서
책임감이 든다”라는 글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 돋보기

[백세수업] 노년기 치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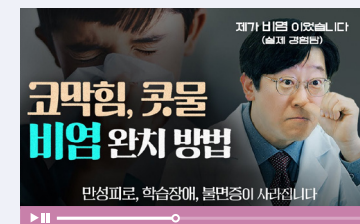
출연: 치과 김영성 교수

노년기까지 잘 먹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치아를 최대한 잘 보존하
여 발치하지 않고 오래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의
주요 원인에는 딱딱한 음식으
로 인한 치아 깨짐, 침식 기능



저하로 인한 충치, 잇몸 근처 세균이 일으키는 잇몸 염증 등
이 있는데 각 원인별 예방법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방
법에 대해 백세수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코막힘, 콧물 비염 완치 방법



출연: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자장을 주는데요. 알레르기비염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법
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상식들까지 건강플러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절기의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코
막힘과 콧물. 이 중 코막힘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로 속
면을 방해합니다. 숙면을 하
지 못하면 만성피로가 생기
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도